

금호석유화학, 금호산업 주식 152만주 매도

금호석유화학은 3월22일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해소하기 위해 금호산업 주식 152만주(236억4000만원 상당)를 특수관계인인 박재영, 박철완, 박세창, 박준경에게 매도한다고 밝혔다.

금호석유화학은 2004년 말 현재 금호산업 지분 45.34%를 보유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3/23>